

데이비드 살레

《회화, 현재시제(Paintings in the Present Tense)》

2026년 5월 6일—9월 27일
팔라초 치니 갤러리(Palazzo Cini Gallery, Venice)



데이비드 살레, Workplace, 2025-26
리넨에 아카이브용 UV 프린트, 유채, 아크릴릭, 플래쉬 그리고 목탄
182.9 × 236.2 cm (72 × 93 in)

패권 기술을 전복하는 방법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데이비드 살레

2026년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개최되는 《회화, 현재시제(Paintings in the Present Tense)》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살레(David Salle)가 베니스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개인전으로, 조르조 치니 재단(Fondazione Giorgio Cini) 미술사 연구소의 루카 마사모 바르베로(Luca Massimo Barbero) 디렉터가 기획하고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가 후원한다. 본 전시에서 살레는 초기 연작인 <타피스트리 회화(Tapestry Paintings)>(1989-91)에 자신의 인공지능 모델을 회화의 논리를

해체하고 재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의 예술적 지평을 넓힌다. 해당 연작은 16-17세기 이탈리아 유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18세기 러시아 황실의 타피스트리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작가는 다층적 도상을 인공지능으로 재해석하며, 시간과 매체, 장소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회화를 선보인다. 수백 년 간 이어온 '캔버스 위 유채'라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발 빠르게 수용해 인공지능과 협업하고 있는 살레의 행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다. 작가는 이를 두고 “패권 기술을 전복하기 위해 이를 오히려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살레는 2022년부터 자신의 방대한 작품 세계를 학습시킨 전용 모델을 개발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생성 작업을 선구적으로 이끌어왔다. 이는 ‘작가’ 혹은 ‘사상가’라는 자신의 역할을 기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예술 세계에 의도적인 ‘균열’을 일으키는 데 있다. 기계는 직접 형상을 그리거나 묘사하지 않고 기존의 구성을 집요하게 비틀고 해체함으로써 파편화된 조각들을 인공적 총체로서 재구성한다. 살레는 인공지능의 부상 속에서 인간의 고유한 표현력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정면으로 다룬다.



데이비드 살레, Yellow Shawl, 2025-26
리넨에 아카이브용 UV 프린트, 유채, 아크릴릭, 플래쉬 그리고 목탄
152.4 × 195.6 cm (60 × 77 in)

〈타피스트리 회화〉 연작은 살레 화풍의 핵심적인 특징인 ‘동시성’을 잘 보여준다. 성경의 일화나 궁정 초상화, 정물, 그리고 여러 일상적인 장면을 담은 16-17세기 이탈리아 회화는 과거 러시아 직공들의 숙련된 손길을 거쳐 양모와 실크 소재의 타피스트리로 옮겨진 바 있다. 살레는 이 타피스트리 구성을 캔버스와 유화라는 매체를 통해 재해석해, 특유의 서정적인 이미지 군집을 만들어낸다. 또한 그는 캔버스 면을 도려낸 후 별도의 화면을 평평하게 끼워 넣는 매립형 패널을 더해, 화면의 구성적 질서를 의도적으로 분절시키며 대비되는 시간성과 모티프들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바탕을 이루는 타피스트리 도상과 그 위를 흐르는 서정적인 붓질, 그리고 정교하게 삽입된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화면을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는 서로 긴밀히 조응하며 ‘관계적 현재성’이라는 하나의 상태 안에 동시다발적인 감각으로 경험된다.

본 전시에서 〈타피스트리 회화〉는 더 깊은 변화를 겪는다. 살레의 인공지능 모델을 거치며, 이탈리아 회화 맥락으로부터 이미 두 차례 번안되었던 인물과 장면들은 기이하고 환상적이며 전면적인 추상의 형태로 변모한다. 형체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살레의 초기작이 지닌 고유한 DNA는 물론, 그 뿌리가 되는 미술사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성된 도안이 캔버스에 인쇄되면 작가는 비로소 그 위에 현재의 손길을 더한다. 살레는 붓을 들어 인쇄된 픽셀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반응하며 화면을 다듬거나 과감하게 깨뜨리고, 때로는 형상을 증폭시킨다. 그 위로 강렬한 색채의 또 다른 이미지 층을 쌓아 올려, 유희물감이라는 아주 오래된 매체를 현대 기술과 공존하게 한다. 그 결과, 인공지능이 빚어낸 환각 속의 나체, 궁정인들과 군주, 기사들은 패션 광고의 파편이나 쌓인 찻잔 같은 정물들과 화면 위에서 주도권을 다툰다. 시뮬레이션 된 현실과 그려진 현실이 충돌하고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이 유동적인 병치는 어느 시대나 지역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독특한 시공간을 창조한다.

회화의 모든 것은 현재시제로 존재한다. 미술사 속 과거의 시간은 회화 속에 흡수되는 동시에 그 안에서 공명한다.
— 데이비드 살레

지금까지 살레가 회화작업을 해온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역시 방대한 시각 데이터를 훑고 소화하며 그 특징들을 추출해 낸다. 그러나 기계의 신경망은 본래 윤곽선이나 경계, 명암과 같은 회화의 기본 요소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살레는 이러한 요소를 디지털 방식으로 치환하여 기계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붓질이 어떤 경계를 정의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표현적 요소가 될 수 있는 회화적 원리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기초적 번역 및 해석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살레는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보조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인공지능은 과거와 현재, 실제와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중 스파이’가 되어 살레의 작업을 예상치 못한 기이하고 전복적인 방식으로 재조합한다. 작가는 이를 두고 “기계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묘사의 규칙을 보란 듯이 어긴다”라고 덧붙인다.

본 전시에서 수 세기 동안 쓰여진 미술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교차하고, 인공지능은 작가 특유의 회화적 문법 속 깊숙이 침투한다. ‘미메시스’는 인공지능의 존재 이유이자 작가의 오랜 화두였다. 그러나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업에서 재현의 논리는 살레의 표현을 빌어 ‘일종의 복화술’이라 할 만큼 새로운 형상을 빚어내는 예술적 원동력을 그 임계점까지 밀어붙인다. 그는 모방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재현의 체계’가 무너지는지, 즉 실제 대상과 그 대상을 묘사한 이미지 사이의 연결



데이비드 살레, *Mime*, 2026
 리넨에 아카이브용 UV 프린트, 유채, 아크릴릭, 플래쉬 그리고 목탄
 182.9 × 236.2 cm (72 × 93 in)

고리가 언제쯤 붕괴하여 무의미한 상태에 이르는지 탐구한다. 팔라초 치니라는 역사적 공간은 살레의 이러한 우회적 과정이 또 다른 미술사적 층위와 만나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15세기 이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회화와 장식 미술 오브제, 타피스트리가 자리한 아래층과 현대 미술 작품들을 선보이는 위층의 대비는,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하는 살레의 작업과 공명하며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거울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미장아빔(mise en abyme)' 속으로 관람객을 이끈다.

무분별하게 생성된 허구의 이미지들이 실재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오늘날, 유연하게 변화하는 회화적 공간을 구축하려는 살레의 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유의미하다. 이제 기계와의 협업은 단순한 공존을 넘어 하나의 치열한 각축전이 되었다. 작가의 말처럼 핵심은 인공지능이 이끄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표류하는 의미를 건져 올려,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그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예술가적 역량에 달려 있다.



데이비드 살레. 사진: 코스타 피카다스.

작가소개

1952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노먼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살레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1970년부터 75년까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를 다녔으며, 당시 개념미술가인 존 발데사리(John Baldessari)가 그의 멘토였다. 작가는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영화와 몽타주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으며, 이는 그의 초기 작품에 반영되었다. 그는 1980년대 대중매체의 차용과 탐구를 통해 이미지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한 ‘더 픽처스 제너레이션(The Pictures Generation)’의 주역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첫 미술관 개인전은 1983년 보이만 반 뵈닝겐 미술관(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Rotterdam)에서 개최되었다. 1999년 암스테르담 시립 미술관(Stedelijk Museum Amsterdam)에서 개최된 첫 회고전은 빈 현대미술관(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과 카스텔로 디 리볼리 현대미술관(Castello di Rivoli Museo d'Arte Contemporanea, Turin),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Bilbao)을 순회했다.

이후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가 2000년 몬테레이 현대 미술관(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Monterrey), 2009년 케스트너 게젤샤프트(Kestner Gesellschaft, Hannover), 2016년 말라가 현대 미술 센터(Centro de Arte Contemporáneo de Málaga), 2021년 브랜트 재단(The Brant Foundation, Greenwich) 등에서 개최되었다.

살레는 회화 작업에 전념하는 한편, 무대 및 의상 디자인을 통해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폭넓은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안무가 캐롤 아미티지(Karole Armitage)와 협업한 작품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 New York), 브루클린 음악원(Brooklyn Academy of Music, New York),

보스턴 오페라 하우스(Citizens Opera House, Boston), 파리 국립 오페라(Opéra national de Paris),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Deutsche Oper Berlin), 오페라 코미크(Opéra Comique, Paris)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상연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아 1986년 공연 예술 부문 구겐하임 펠로우십(Guggenheim Fellowship)을 수상했으며, 1995년에는 마틴 스코세이지(Martin Scorsese)가 제작하고 존 터투로(John Turturro)와 크리스토퍼 월켄(Christopher Walken), 그리핀 던(Griffin Dunne)이 주연을 맡은 장편 영화 <Search and Destroy>를 연출하며 영화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살레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비평가로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아트포럼(Artforum),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스 T 매거진(T: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 그리고 파리 리뷰(The Paris Review)와 같은 주요 매체는 물론, 전시 도록 등에 기고해 온 에세이와 인터뷰들은 미술계에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뉴욕 리뷰 오브 북스(The New York Review of Books)에서 주요 필진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6년 W. W. 노턴(W. W. Norton)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비평집 『How to See: Looking, Talking, and Thinking about Art』는 대중과 평단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그는 현재 국립 디자인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Design)와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취재문의:

이지현 PR 매니저
press.seoul@ropac.net | 010-6604-1894

Nina Sandhaus, Head of Press, London
nina@ropac.net

Marcus Rothe, Head of Press, Paris
marcus.rothe@ropac.net

Patricia Neusser, Head of Press, Publications & Content, Salzburg
patricia.neusser@ropac.net

Sarah Rustin, Global Senior Director, Communication & Content
sarah.rustin@ropac.net



Share your thoughts with:

@fondazionecini
#FondazioneGiorgioCini
@thaddaeusropac
#ThaddaeusRopac
#DavidSalle

